

아산재단 · 정몽준 이사장, 이재민 지원 및 수해복구 성금 5억 원 전달



아산사회복지재단과 정몽준 재단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구호성금 5억 원을 지난 7월 18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. 이날

아산재단은 3억 원, 정 이사장은 개인 자격으로 2억 원을 전달했다. 한편 아산재단은 2022년 강원 ·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3억 원을, 2023년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 성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.

사회복지 협력기관 워크숍 개최

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7월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3년 사회복지 협력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.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3년 협력기관 지원증서 전달과 협력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, 사업 부문별 세미나가 진행됐다. 올해 새롭게 선정된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분야 9개 협력기관을 비롯한 24개 협력기관의 실무자 45명이 참석했다.

학술연구 지원사업 연구과제 12편 선정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6월 2023년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주제 ‘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’에 응모한 연구과제 중 12편을 최종 선정했다.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사회보험 및 연금, 돌봄, 1인 가구 및 고독사, 의료 접근성 불균형 등에 대한 연구로 연구자는 7월부터 1년간 연구를 수행하고, 국

내외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. 또한 우수 연구자는 2024년 6월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.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학문과 사회발전을 위해 유능한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. 🌐